

<별첨>

저성장·저금리 시대 효율적 자산관리수단으로

ETF 시장 발전 방안

2015. 10. 5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목 차

I. 추진배경	1
II. ETF 시장 현황 및 평가	3
III. ETF 시장 발전방안	6
1. [수요측면] 장기안정적 수요기반 확충	7
가. 기관투자자의 저변 확대	7
나. 개인투자자의 투자환경 개선	8
다. ETF 투자 인센티브 제고	9
라.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9
2. [공급측면] 규제 개선을 통한 ETF 상품성 제고	10
가. 상장규제 합리화	10
나. 운용규제 개선	11
다. 상품 다양성 제고	12
IV. 향후계획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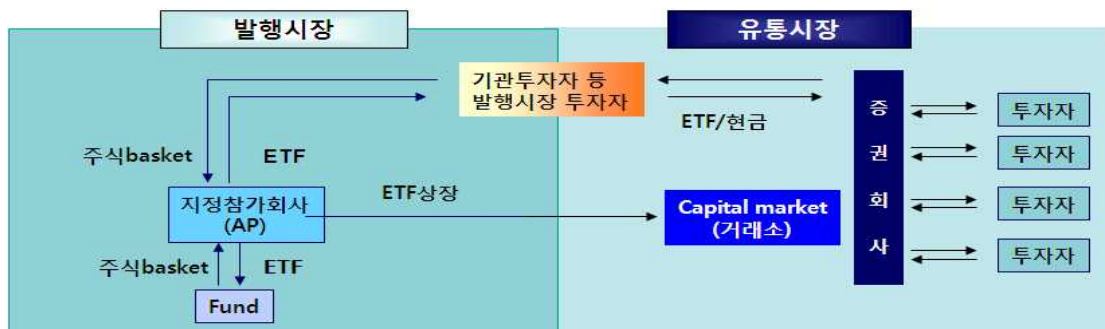
I. 추진 배경

- ETF(Exchange Traded Fund)는 특정 지수(KOSPI200 등)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인덱스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상품
 - 주식과 펀드의 특징을 섞은 융합형 상품으로, 저비용으로 분산투자가 용이한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간접투자에 적합
- 글로벌 ETF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위험·중수익 선호 증대에 따른 패시브펀드로의 자금 이동 등으로 성장이 가속화
 - * 글로벌ETF 순자산총액(십억불): ('10) 1,483 ('11) 1,525 ('12) 1,944 ('13) 2,396 ('14) 2,797 ('15.7) 2,984
 - 저비용·안전성 등 제도적 장점에 힘입어, ETF는 세계적으로 개인·기관투자자의 효과적 자산관리수단으로 부상
- 글로벌 트렌드와는 달리, 우리 ETF 시장은 '14년부터 성장이 정체되고 있으며 금년 들어서는 시장규모가 위축
 - * 국내ETF 순자산총액(조원) : ('10) 6.0 ('11) 9.9 ('12) 14.7 ('13) 19.4 ('14) 19.7 ('15.7) 18.9
 - 주식시장 부진으로 인한 KOSPI200 등 시장대표지수 ETF 동반 부진, 다양하고 혁신적인 상품 개발 부족 등에 기인
 - 연기금이 ETF 투자에 소극적이고, 금융투자회사의 신용으로 간편히 발행되는 ELS 등 경쟁상품 증가*로 ETF 수요가 이탈
 - * ELS.DLS 발행잔액(조원) : ('10) 22.4 ('11) 38.8 ('12) 51.6 ('13) 63.2 ('14) 84.1 ('15.6) 94.4
- 국내 ETF 시장 정체와 글로벌 자금의 패시브펀드로 이동 추세에 맞추어, ETF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증가
 - 중위험·중수익 투자 수요를 충족하되, 시장리스크로 전이될 우려가 낮은 ETF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개발 필요성 확대
 -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안정적 운용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필요

➔ ETF에 대한 적극적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효과적 자산관리수단으로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참 고 ETF 제도 개요

- (개념) 코스피200 등 특정지수의 수익률을 추적하도록 설계된 인덱스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매매거래가 가능한 펀드
- (특징) 저렴한 비용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환금성이 높은 등 다양한 장점을 보유
 - (효율성↑) 개별주식 투자에 비해 적은 자금으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개별종목들에 대한 분산투자가 가능
 - (비용↓) 기초지수를 단순 추종하여 운용보수가 낮고 거래소 거래로 판매보수가 없는 등 일반펀드에 비해 거래비용이 저렴
 - (환금성↑)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실시간 시장 가격으로 매수·매도 가능하여 높은 환금성을 보유
 - (위험도↓) ELS 등 파생결합증권과 달리 발행사 신용위험이 없고, 단순한 수익구조 등으로 비교적 안전한 투자가 가능
- (참여자) 자산운용사, 지정참가회사 및 유동성공급자(증권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지수산출기관 등으로 구성
 - 자산운용사(17개)는 ETF의 운용 주체로서 ETF를 설정·환매하고, 구성종목을 교체하는 역할 등을 담당
 - 지정참가회사(AP: Authorized Participant)는 발행시장에서 ETF 설정·환매를 신청하며, 이중 일부는 유통시장에서 유동성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로서 호가 제시 등을 담당
 - 신탁업자는 ETF 자산의 보관·관리, 일반사무관리회사는 ETF의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 계산 역할 등을 수행



II. ETF 시장 현황 및 평가

1 현황

① [시장규모] 성장세 정체

- ETF 자산규모는 시장개설('02) 이후 연평균 40% 이상 성장해 왔으나, 금년들어 감소세로 전환하여 '15.7월 현재 18.9조원 수준

	'02	'04	'06	'08	'10	'11	'12	'13	'14	'15.7
순자산(조원)	0.34	0.49	1.56	3.40	6.06	9.91	14.7	19.4	19.7	18.9
상품수(개)	4	4	12	37	64	106	135	146	172	181
운용사(개)	2	2	3	7	12	13	16	16	16	17

- 일평균 거래규모도 '14년부터 크게 감소하여 6천억원 수준

	'02	'04	'06	'08	'10	'11	'12	'13	'14	'15.7
일평균 거래대금(억원)	327	113	230	981	1,102	4,896	5,442	7,925	6,883	6,818

② [상품유형] 국내주식형 ETF 위주

- 국내 주가지수를 단순 추종(1배)하는 ETF가 가장 높은 비중(56.0%)을 차지하고, 채권형(23.1%), 파생형*(12.1%) 순으로 구성

* 국내주가지수의 2배(레버리지).-1배(인버스)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ETF

- 해외지수형 ETF도 다수 출시되고 있으나, 점유율은 미미(6.3%)

- 파생형 ETF는 도입('09년 인버스, '10년 레버리지) 이후 높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증거금 인상 등 시장안정조치('11) 이후 감소추세*

* 파생형 ETF의 거래대금 중 비중 : ('11) 75.0 ('12) 71.5 ('13) 61.5 ('14) 55.1 ('15.7) 44.9

('15.7말)	국내주식		채권	해외주식	기 타*	합 계
	1배	2배/-1배				
종목수(개)	95	7	22	40	17	181
(비중(%))	(52.5)	(3.9)	(12.2)	(22.1)	(9.4)	(100.0)
순자산(억원)	106,158	23,021	43,812	11,953	4,534	189,478
(비중(%))	(56.0)	(12.1)	(23.1)	(6.3)	(2.4)	(100.0)
거래대금(억원)	2,745	3,062	398	491	122	6,818
(비중(%))	(40.3)	(44.9)	(5.8)	(7.2)	(1.8)	(100.0)

* 상품(11종목, 3,649억원), 통화(2종목, 299억원), 부동산(2종목, 177억원), 구조화(2종목, 409억원)

③ [투자자비중] 개인투자자 중심

- 전체 투자자 중 개인의 거래비중은 35.9%로, 기관투자자(23.7%) 및 외국인(21.0%)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
 - 개인투자자 비중은 파생형 ETF 증거금을 인상('11) 및 ELS 투자 증가 등으로 점차 감소해 왔으나, 금년들어 증가세로 재전환
 - * 개인 거래비중(%) : ('12) 42.4 → ('13) 35.9 → ('14) 32.0 → ('15.7) 35.9
 - 기관투자자 비중은 시장 개설 초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증권사 등 거래 감소로 인해 금년들어 감소 추세
 - * 기관 거래비중(%) : ('12) 17.6 → ('13) 20.1 → ('14) 25.4 → ('15.7) 23.7

('15.7말)	기관						개인	외국인	LP	합계
	증권	펀드	은행 보험	연금	기타	소계				
일평균 거래대금(억원)	703	496	303	20	95	1,617	2,449	1,431	1,320	6,818
(비중(%))	(10.3)	(7.3)	(4.4)	(0.3)	(1.4)	(23.7)	(35.9)	(21.0)	(19.4)	(100)

④ [상품비중] 소수의 특정상품 중심

- ETF를 운용하는 17개 운용사 중 상위 3개 회사가 순자산 (비중 78%)·거래대금(비중 92%) 등에서 과점적 지위 형성
 - 순자산 기준 상위 3종목의 비중은 시장 전체의 37.1% 수준이며, 거래대금 상위 3종목의 비중은 68.5% 수준
- 일부 종목을 제외한 대다수 종목(81.2%)은 일평균 거래대금 10억원 미만으로 거래가 부진

⑤ [시장점유율] 공모펀드 내 비중 감소

- 전체 공모펀드 대비 ETF 비중은 '13년 10.5%까지 증가하였으나, ETF 시장 성장 정체에 따라 '15.7월 현재 8.0%까지 감소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7
공모펀드(조원)	166.7	210.3	198.6	169.2	186.3	184.4	198.1	237.5
ETF(조원)	3.4	3.8	6.1	9.9	14.7	19.4	19.7	18.9
비중(%)	2.0	1.8	3.1	5.9	7.9	10.5	9.9	8.0

2 평가 및 문제점

- ◇ '02년 ETF 시장 개설 이후 단기간 내 세계적 규모의 시장으로 발전*하는 등 양적 측면에서 빠른 성장세를 시현
 - * '15.7월 현재 종목수 기준 세계 10위, 거래대금 기준 세계 8위의 시장
- ◇ 다만, 질적 측면에서 시장의 성숙도는 선진시장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

- ① ETF에 대한 투자자 접근이 제한되는 등 수요기반이 취약
 - 주식투자에 익숙치 않은 일반적 펀드 투자자들은 주식처럼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에 거리감이 존재하여 투자를 기피
 - * 주식 투자에 익숙한 개인들은 중위험·중수익 상품인 ETF 보다는 개별주식 투자를 선호
 - 재간접펀드, 랩어카운트 등 다양한 자산관리 vehicle을 통한 ETF 편입도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 ② ETF 상품 공급이 시장대표지수와 시황지수 위주로 편중되는 등 상품 다양성도 부족
 - KOSPI200 등 국내 시장대표지수 ETF 위주의 시장 고착화로 증시 부진시 ETF 시장도 동반 침체되는 경향
 -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자산배분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하여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저조
- ③ ETF가 주로 트레이딩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미국 등 선진시장과 같은 장기투자 성격의 자산관리수단 역할은 부족
 - 레버리지·인버스 ETF 위주 시장(거래비중 45%)으로 단기차익 실현목적과 주식투자에 따른 시장위험 헷지목적으로 주로 활용
 - ETF는 ELS 등 다른 투자상품에 비해 운용규제가 엄격하고, 다양한 참여자가 필요한 구조로 신속한 상품개발이 어려움

Ⅲ. ETF 시장 발전방안

〈 기본 방향 〉

- ◇ 기관·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운용규제를 개선하고 ETF 투자 인센티브를 제고하여 수요저변을 확대
- ◇ ETF 개발·상장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투자자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효율적 자산관리수단의 역할을 강화

비전

저성장·저금리 시대 핵심적 자산관리수단으로 육성

ETF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수요·공급구조 개선

**추진
과제**

장기안정적 수요기반 확충

- ① **기관투자자의 저변 확대**
 - 연기금
 - 펀드
 - 금융투자회사
- ② **개인투자자의 투자환경 개선**
 - 자문업 활성화
 - 투자정보 제공 강화
- ③ **ETF 투자 인센티브 제고**
 - 해외주식형ETF 세제혜택 부여
- ④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괴리율 관리 강화

규제 개선을 통한 상품성 제고

- ① **상장규제 합리화**
 - 상장심사 간소화
 - 시장관리규제 개선
- ② **운용규제 개선**
 - 파생상품 한도규제 개선
 - 설정·환매방식 확대
 - 운용방법 확대
- ③ **상품 공급 다변화**
 - 투자회사형 ETF 상장
 - 해외지수·파생형 ETF 다양화
 - 외국 상품 ETF 상장

1 [수요측면] 장기·안정적 수요기반 확충

가 기관투자자의 저변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ETF는 저비용·분산투자 등의 장점이 있어 선진 시장에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자산배분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음
 - 주식·채권을 직접 편입하는 대신 다양한 ETF를 편입하여 분산효과를 거두는 중위험·중수익형 재간접펀드*도 활성화
- * (예시) 섹터 ETF를 편입하여 유망 업종에 투자하는 섹터로테이션 펀드, 시장상황에 따라 주식ETF와 채권ETF의 비중을 조절하는 자산배분형 펀드
- 다만, 우리는 엄격한 운용규제*와 ETF의 상품 다양성 부족, 시스템 미비 등으로 기관투자자의 ETF 활용 저조(거래비중 0.3%)
- * 국민연금 내규상 국내 ETF 투자 제한, 감독원지침상 개인연금의 ETF 투자 금지 등

(2) 개선방안

- 개인연금을 통한 ETF 투자 허용¹⁾, 퇴직연금이 편입 가능한 ETF 상품 확대²⁾ 등 연기금의 ETF 편입관련 규제를 완화

1) ETF 편입 금지 → **ETF 편입 허용** (단, 레버리지·인버스 등 고위험 상품 제외)

2) 파생형 ETF 금지 → **합성ETF 중 레버리지 없는 상품**은 허용

※ 국민연금의 국내 ETF 투자가 허용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 연기금과 협의하여 연기금 수요 맞춤형 ETF 상품도 개발
- ETF를 활용한 다양한 재간접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ETF 투자에 대한 펀드의 자산운용규제를 개선

① 현재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할 때 투자대상펀드 증권총수의 20%까지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대상펀드가 ETF인 경우 투자한도를 50%까지 확대**

② 현재 **주식형 ETF만** 펀드가 **재산의 100%까지** 투자 가능하나, **채권형 ETF까지 확대**

- 증권사의 ETF 투자 활성화를 위해 NCR 관련 위험액 산출시 낮은 위험값(4→1%)을 적용받는 ETF 기초지수의 범위*도 확대

* (현행) KOSPI, KOSTAR 지수 → (개선) 유동성·분산도를 갖춘 다른 지수를 추가

나

개인투자자의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1) 현황 및 문제점

- ETF는 주식처럼 거래소 시장에서만 거래 가능하여, 주식 투자경험이 없는 개인 투자자는 ETF 투자 접근성이 제한
 - 은행 등 전통적 펀드 판매채널을 통해서도 ETF 투자정보와 상품 추천을 받기 어렵고, 투자 절차도 일반 펀드와 상이
 - 판매보수·수수료가 없는 저비용 구조로 인해 판매마진이 작아 신탁, 랩 등 자산관리수단을 통한 ETF 편입도 저조
- 반면, 주요 선진국에서는 ETF를 활용한 자문과 자산관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투자자의 ETF 투자가 활성화

※ 해외사례

- ◇ (미국) 저렴한 비용으로 ETF를 활용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문·일임회사(Robo-Advisor)가 크게 활성화
 - * ETF Portfolio 시장규모는 \$86billion로, 151개사가 660여개의 포트폴리오 보유('15.3)
- ◇ (호주) 자문을 제공하는 자에게 fee-based 영업만 허용하는 판매채널 개혁(FOFA Reforms('13)) 이후, 자문업자들이 ETF 활용을 늘려 ETF 시장규모가 급성장(55%↑)

(2) 개선방안

- 판매수수료가 아닌 자문료 중심의 자산관리 산업을 육성하여 저비용의 중위험·중수익 상품인 ETF 판매 활성화를 유도
 - 독립투자자자문업(IFA) 도입, 자문제공에 따른 성과보수 수취기준 마련 등 자문업 활성화를 통해 ETF 판매 유인 확대
 - ETF도 중요한 편입대상이 되는 ISA 제도 도입시 ETF 편입 원활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 * ETF 편입 시스템 구축 독려, ETF 편입 관련 은행-증권사 간 제휴 강화 등
- ETF 상품간 운용성과·투자위험 관련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 (거래소 홈페이지 내)하여 ETF 투자정보 접근성을 확대

다

ETF 투자 인센티브 제고

- (현황) 저금리·저성장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외국상장 ETF 투자가 크게 증가
 - 반면, 국내상장 해외지수형 ETF 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흡
 - * 국내투자자의 외국상장 vs 국내상장 해외지수형 ETF 거래규모(억원)
 - 외국상장 ETF : ('12) 6,088 → ('13) 27,181 → ('14) 41,272
 - 국내상장 해외지수형 ETF : ('12) 1,682 → ('13) 19,476 → ('14) 36,713
- (개선방안) 국내상장 해외지수형 ETF 투자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수요 흡수를 유도
 - '16년부터 도입될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혜택* 대상에 국내상장 해외지수형 ETF가 포함되도록 추진
 - * '17년말까지 계좌내에서 해외주식형 펀드의 자유로운 편입·교체를 허용하고, 펀드 가입일로부터 10년간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환변동분 비과세
 - 펀드 투자계좌를 통해 투자되기 어려운 ETF에 대하여는 ETF 전용 투자계좌 개설을 통한 비과세 혜택 적용

라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현황) 최근 일부 해외지수형 ETF에서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 특히, 중국본토 레버리지 ETF의 경우 중국시장의 변동성 확대, 헷지수단 미흡 등으로 괴리율 위반* 사례가 지속
 - * 괴리율=(시장가격-순자산가치)/순자산가치, 위반기준 : 국내 3%, 해외 6%
- (개선방안) 괴리율 위반사항에 대한 LP평가 및 ETF 심사 강화
 - LP평가지 현행 종가기준 괴리율 평가를 장중 괴리율 평가로 변경하고, 괴리율 평가 비중도 2배로 상향(10점 → 20점)
 - 변동성이 높고 헷지수단이 불완전하여 괴리율 발생가능성이 높은 ETF에 대한 상장심사 강화

2

[공급측면] 규제 개선을 통한 ETF 상품성 제고

가

상장규제 합리화

(1) 현황 및 문제점

- ETF는 거래소에 상장되는 상품이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주권과 유사한 수준의 상장심사를 거쳐야 함
 - 다만, 일반 주식과는 다른 ETF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엄격한 상장규제*로 인해 원활한 상품 출시와 적시 공급에 애로
- * (예시) 금감원 등록 심사를 거침에도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거래소의 장기간 상장심사(45일)를 거쳐야 함(ETN은 심사기간이 15일) → 시의적절한 상품 출시 곤란
- 경직적 상장폐지 제도 운영¹⁾, 지수 산출기준 변경 금지²⁾ 등 일부 획일적 시장관리 규제도 ETF 활성화를 제약

- 1) ETF는 유동성공급자(LP) 제도가 의무화되고 있음에도, 저유동성(일평균 거래 500만원 이하) ETF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 2) ETF의 수익률 등 상품성 제고를 위해 기초지수 산출기준 변경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변경을 금지(변경시 상장폐지)

(2) 개선방안

- 거래소의 상장심사 기간을 단축(45일 → 20일)하고 상장제한 사유를 완화*하는 등 ETF에 대한 상장심사 간소화
- * 현재 기 상장 ETF와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추가상장을 금지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으로 개선
-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상장폐지 제도를 합리화¹⁾하고, 기초지수의 산출기준 변경을 허용²⁾하는 등 ETF 시장관리 규제도 개선

- 1) ETF 관리종목 지정기준(소규모, 저유동성) 중 저유동성 요건을 폐지 (단, 투자자의 적정가격 거래에 문제가 없도록 괴리율 관리는 강화)
- 2) 기초지수의 정체성이 유지되고 통계적으로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경우 지수 산출기준 변경을 허용하되, 충분한 공시 의무화

[1]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규제 개선

- (현황) 펀드의 원본 초과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파생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펀드 순자산의 100%로 제한하고 있으나,
 - 위험평가액 산정산식이 보수적이어서 순자산을 초과하는 손실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다양한 상품 설계*와 효율적 운영** 곤란
- * 구조화 ETF(예: 커버드콜 전략 ETF, 일정수익 보장(ELS형) ETF) 개발에 한계
- ** 레버리지 ETF의 선물 편입한도 제한으로 불필요한 현물포지션 보유
- (개선방안) 원본 초과손실 발생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ETF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확대(100%→200%)
 - * 위험평가액 한도를 확대하더라도 일별 포지션 조정, 가격제한폭, Stop Loss 장치 등을 통해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도록 설계가 가능
 - 중장기적으로는 펀드의 자산운용상 제약을 보다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위험평가액 산정산식 합리화 추진

[2] 설정·환매방식 확대

- (현황) 실물 환매에 따른 기초자산 시장 충격 완화와 추적오차 최소화를 위해 ETF 설정·환매는 수량단위로 하도록 의무화
 - 수량방식은 지수 구성종목을 편입하는 대신, 지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장외스왑을 편입하는 합성 ETF의 특성과는 불일치
- (개선방안) 합성 ETF에 대해 금액단위 설정·환매를 허용

[3] 기초자산 운용방식 확대

- (현황) ETF는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현물주식을 직접 편입하여 운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다양한 해외지수형 ETF 설계에 제약
- (개선방안)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물대신 선물을 활용한 자산운용을 허용
 - * 기초지수-NAV 간 높은 상관성 보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제한

[1] 투자회사형 ETF

- (현황) 국내에는 투자신탁형 ETF만 상장되어 있고, 지분 보유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투자회사형 ETF는 비활성화

* 지분 5%이상 보유시 공시의무(자본시장법§147①), 금융기관이 지분 20%이상 소유시 금융위 사전승인의무(금산법§24①) → 증권사가 투자회사형 ETF의 LP 참여를 기피

- (개선방안) 투자회사형 ETF의 지분 보유에 따른 사전승인·보고의무를 면제하여 투자회사형 ETF의 실질적 상장 허용

[2] 해외지수형 ETF

- (현황) 해외지수형 ETF가 특정국가 상품으로 편중(중국 59%, 미국 17%, 홍콩 8% 순)되어 다양한 해외투자 수요 충족에 한계

- (개선방안) 다양한 글로벌 지수 ETF의 개발·활성화를 위해 ETF가 추종할 수 있는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하고, 이머징 국가·해외 섹터 ETF 등으로 해외지수형 상품 개발을 다변화

* 200개이상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에 대하여는 최저 시가총액(150억),거래대금(1억) 요건이 적용되는 종목을 완화 : 지수 구성종목 중 시총순 85% → 75% 해당종목

[3] 파생형 ETF

- (현황) 파생형 ETF의 기초지수는 시장 대표지수로 한정되고 있으며, 기초지수 수익률의 2배 및 -1배를 추종하는 상품만 존재

- (개선방안) 기초지수 일간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 섹터 레버리지 ETF 도입 등 ETF 상품 다양화

[4] 외국 ETF * 외국 운용사가 외국에서 설정·상장한 ETF

- (현황) 외국 ETF를 국내에 상장·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ETF가 편입하는 기초자산 중 동일상품(귀금속 등) 편입한도를 20%로 제한*

* 국내 ETF의 동일상품 최대 편입한도는 100%로 운영중

- 해외 유수의 상품 ETF(예: SPDR gold(금 100%))의 국내 상장이 곤란

- (개선방안) 외국 ETF의 동일상품 편입한도를 확대(20%→100%)

IV. 향후계획

□ 각 과제별 후속조치 사항은 가급적 금년중 차질없이 마무리

< 과제별 추진 주체 · 조치 사항 · 시행시기 >

추진 과제	조치 필요사항 (추진일정)	추진주체
1. [수요 측면] 장기·안정적 수요기반 확충		
■ 기관투자자의 저변 확대 - 연기금 - 펀드 - 금융투자회사	- 자본시장법시행령 금투업규정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15.12) - 금감원 실무지침·금투협규정 개정('16.상)	금융위 금감원 금투협
■ 개인투자자의 투자환경 개선 -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 ETF 투자정보 제공 확대	- 방안 마련('15.12) - 거래소 시스템 개발('16.상)	금융위 거래소
■ ETF 투자 인센티브 제고 - 해외주식형 ETF 세제혜택 부여	- 조특법 개정('15.12) 및 동법 시행령 개정('16.상)	기재부
■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괴리율 관리 강화	- 거래소규정 개정('15.12)	거래소
2. [공급측면] 규제 개선을 통한 상품성 제고		
■ 상장규제 개선 - 상장심사 간소화 - 시장관리규제 합리화	- 거래소규정 개정('15.12)	거래소
■ 운용규제 개선 - 파생상품 보유한도 규제 완화 - 설정·환매방식 확대 - 기초자산 운용방식 개선	- 자본시장법시행령 금투업규정 거래소규정 개정('15.12)	금융위 거래소
■ 상품 다양성 제고 - 투자회사형 ETF - 해외지수형 ETF - 파생형 ETF - 외국 ETF 등	- 금산법 개정안 국외제출 금투업 규정 개정('15.12)	금융위